

# 모노크롬 회화를 응용한 현대 패션 디자인 연구

-1970년대 한국 모노크롬 회화를 중심으로-

간 호 섭\* · 조 은 주\*\*

홍익대학교 섬유미술·패션디자인과 교수\* · 울산대학교 의류학과 강사\*\*

## A Study on the Modern Fashion Design Application of the Monochrome Painting

-Focused upon Korean Monochrome Painting in 1970s-

Ho-Sup Kan\* · Eun-Joo Jho\*\*

Professor, Dept. of Textile Art and Fashion Design, Hongik University\*

Instructor, Dept. of Clothing & Textiles, Ulsan University\*\*

(2005. 6. 7 투고)

### ABSTRACT

The result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result of the examination about the theoretical background of the monochrome was influenced by the minimalism and modernism, and consequently the abstract expressionism which is the main trend of the modern painting was formed basing upon the plane feature and unicolor character, and it was recognized that the custom of the plane feature was implied into the monochrome. Second, the aesthetic characteristics such as the beauty of body, beauty of simplicity, beauty of nature, beauty tradition, and beauty whole of the Korean monochrome paintings in 1970s were expressed in the modern fashion as follows.

The beauty of body can be told as the dress which exposes the body or See-through look in the modern fashion. The beauty of simplicity is expressed as the most simple and non-decorating minimalism element. The beauty of nature is expressed by using the natural and convenient color without any artificiality. The beauty of tradition is expressed in the Han-bok natural white material. The beauty of whole is easily expressed by using repeated print, partition or overall harmonized beauty.

Key words: Korean monochrome paintings in 1970s(1970년대 한국 모노크롬 회화), fashion design(패션 디자인), monochrome(모노크롬)

## I. 서론

현대의 한국 사회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가 세계화에 동참하기 위해 과거의 삶의 방식을 과감히 떨쳐 버리고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급격히 탈바꿈하고 있다. 이러한 때에 심각히 우려되는 것은 우리의 전통적 가치관과 민족적 정체성의 함몰이다. 비록 삶의 방식과 표피적 생활양식은 바뀐다 할지라도 우리의 정신적 좌표와 정체성만은 흔들림 없이 확고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오늘날 우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어느 분야에서 예외는 아니라고 본다.

오늘의 패션에 있어서도 이러한 명제의 당위성은 물론 예외가 아니다. 패션은 한 사회를 반영하는 총체적인 예술로서 여러 사회, 문화적인 변화와 유행을 가장 민감하게 반영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패션은 우리만의 정체성을 가지고 재해석하여 디자인되고 창의적인 요소가 첨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위와 같은 맥락에서 서구 미술에서 영향을 받았지만 독자적인 한국적 표현과 정체성을 보여준 1970년대 한국 모노크롬 회화는 이러한 현대의 예술적 요구를 잘 나타내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한국의 모노크롬 회화에서 나타나는 미적 특성을 알아보고 이를 현대 패션과 접목시키는데 의의를 두고자 한다.

본 연구는 모노크롬 회화의 미술사적 배경과 특징에 대한 일반적인 고찰을 통하여 모노크롬 회화의 개념을 파악하고 나아가 서구의 모더니즘이나 미니멀리즘적 속성을 지니면서도 한국적 정체성을 뚜렷이 나타내는 1970년대 한국 모노크롬 회화를 살펴보면서 이에 나타난 특성들을 연구하여 현대패션에 응용함으로써 시대사조와 인간내면의 욕구를 반영하는 예술의 한 가지인 패션디자인에 모노크롬 회화의 미적 특성을 투영시키고자 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본 논문의 연구방법은 한국의 1970년대 모노크롬 회화를 중심으로 이미 발표된 관련성을 가지는 논문들, 작가 혹은 비평가 그리고 미술사가 등에 의해

발간된 단행본, 월간 미술잡지 및 비평논문집 등을 참고로 하여 고찰하였다. 그리고 전시회 서문과 화보, 신문에 게재된 평론 등 주로 문헌조사방법을 중심으로 하였으며 그 외에 작가, 갤러리, 비평가, 미술과 교수 등의 인터넷상 미술관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자료를 참고하였으며 사진자료들은 전시회 팸플렛이나 작가의 작품집, 미술 관련 서적, 인터넷 사이버 갤러리에서 패션 컬렉션 사진은 인터넷 패션 관련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였다.

## II. 모노크롬 회화의 일반적 고찰

### 1. 모노크롬 회화의 정의 및 구조적 개념

#### 1) 모노크롬 회화의 정의

사전적 용어에서 찾아보는 모노크롬이란 다색화에 대비하여 단일한 색조를 명도와 채도를 바꾸어서 그린 단색화를 의미<sup>1)</sup>하고 다색화인 폴리크롬(polychrome)과 반대되는 개념이다.

1950~1960년대의 현대회화에서 이러한 모노크롬적 경향이 많이 보이는데, 색채를 통해 배어 나오는 인간의 감수성을 모두 배제한 하드 에지 페인팅(hard edge painting)이나, 형태와 색채의 극단적인 절제를 표명한 미니멀 아트(minimal art)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1950~1960년대 당시의 모노크롬은 넓게는 환원적 경향의 내용을 지니고 화면을 단색으로 물들이며 평면의 절대성을 강조하는 회화이다.

단색의 사용은 회화뿐만 아니라 미니멀 조각에서도 뚜렷이 드러났으며, 한국에서는 1970년대에 모노크롬 회화가 크게 유행하였는데, 서양에서처럼 다색화에 대한 반대 개념으로서의 모노크롬을 수용한 것이 아니라, 물질을 정신세계로 승화시켜 자연으로 회귀하려는 중성적 논리를 펼친 것이 특징이다.

#### 2) 모노크롬의 구조적 개념

##### ① 평면성

회화를 원초적인 평면으로 환원시키려는 의지가

모노크롬에 의해 나타내는데 추상미술의 쇠퇴 이후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려는 시대 상황에서 단색으로 모든 형태를 지우고 평면이라는 큰 화면으로 환원이 실현된다. 모노크롬에서 부여되는 평면성은 다른 회화와는 달리 오로지 평면성 그 자체로만 보이기 위해 표현적 요소를 포함한 어떠한 시각적인 환영도 허용하지 않는다. 모노크롬에 있어서 「보는 일」이라는 시각적 행위는 더욱더 평면에 귀착되는데 물질인 평면을 평평한 사각의 면이라는 실재만을 보게 함으로써 현대회화의 큰 과제이었던 자기 비판적이며 자기 반성적인 경향을 극한까지 실현한 회화라고 볼 수 있다.

## ② 단일색

모노크롬 작가들에게는 어떠한 선이나 모양, 색의 추가라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으므로 단색의 선택에 있어서도 신중하고 단색이 주는 의미도 크다. 모노크롬 회화에 있어 단일색은 색이 주는 의미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준다. 형태가 주는 환영을 제거하고 순수한 색채, 그 자체를 표현하기 위한 시도는 단순성과 평면성의 지향으로 드러난다.

단색과 평면이라는 물질로 시각적으로는 축소적 경향을 나타내고 내면적으로는 비물질의 넓은 공간에로의 표출을 궁극적 목표로 보고 모노크롬의 개념을 정의할 수 있다.

모노크롬회화라는 장르의 특유한 조형수단인 평면과 색채라는 2차원의 조형성 이외의 일체의 의미작용을 배제하고 스스로 자기비판, 자기 해체적 성향 그 자체로 환원하고자 하는데서 구조적 특성에 대한 개념을 정의할 수 있다.

## 2. 모노크롬 회화의 미술사적 배경

19C말의 인상주의의 색채에 대한 새로운 미학을 시작으로 더 이상 재현이 목적이 아닌 회화의 표면을 물질로 보고자 하는 새로운 미술양식들이 20C에 들어서면서 다양하게 등장한다. 과거의 회화사에서는 평평한 표면, 캔버스의 형태, 물감의 속성을 가장 소극적인 요소로 취급하지만 현대 회화에서는 이러한 최소한의 요소를 가장 적극적인 요소로 인

정한다.

모더니즘 회화에서의 대표적 인식은 대상의 재현적 묘사를 포기했다는 점이 아니라, 지각 가능한 3차원적 물체들이 담겨질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재현적 묘사에 단념이다.<sup>2)</sup> 이후, 후기인상파 화가들의 빛을 통한 직접적 경험은 자연현상에 대한 즉물적인 체험으로 그들의 미학과 조형 언어와의 관계는 현상학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들의 업적은 색채에 대한 자율성을 통해 시각현상을 빛으로 환원시키고자 한 것이다. 당시, 인상파와 후기 인상파 화가들의 시각현상에 대한 색채의 자율성과 평면의 독립성에 부여된 평가는 자신들의 작품에 대한 몰인정을 극복하고 스스로 그것을 그림이라고 확신하며 개척하여 그 위치를 확립시키는 계기를 만든다.

그들의 노력은 이후 색채를 더 이상 회화의 부속물이 아닌 시각상의 '순수한 색채'로서의 회화를 낳고 그 기점을 마련한 현대 회화의 선구자가 되었다. 재현적 환영이 배제된 평면은 물감의 사용 확대로 '평면'을 '평면 그 자체'로써의 물질화(物質化)를 시켰다는 점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1940년대 추상표현주의에서는 재현적 형상의 환영이 제거되고 이후 색면파 화가들이 커다란 단일 경향을 보인다. 그들은 색채의 우월성에 주안점을 두고 철저히 평면성에 입각하여 작업을 하였다. 색면파의 색채에 대한 독립된 개방의 노력은 "회화의 대상의 재현이 아닌 색채로 덮힌 하나의 평면이라는 인식<sup>3)</sup>으로 새롭게 팽배해 진다. 특히, 색면추상에 의한 색채 자체가 지니는 의미와 시각의 순수성을 염원하며 모든 표현적 요소들을 따르고 대상이나 형태에 종속된 색채의 의미에서 탈피한 '색' 그 자체에 대한 축소화의 길을 열게 된다.

색면파 회화는 현대회화의 자기 비판적 성향을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시키고자 했는데 색면은 재현 미술과는 다른 잔영적 환영을 제시하는데 색면파의 활동직후, 이러한 잔영적 환영마저 거부하며 모노크롬이 등장한다. 색채에 대한 개방은 하드 에지<sup>4)</sup> 색채와 즉흥적 경향을 낳고 추상회화는 자기반성과 자기 관계성 회복하려는 움직임을 회화의 본질에서 찾고자 한다. 195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러한 회화의

본질로 향한 움직임이 모노크롬에 의해 확인된다. 현대회화의 주요 흐름인 추상표현주의가 평면성을 바탕으로 형성되고 그러한 평면성의 관습이 모노크롬으로 함축될 즈음 색채로 기회를 포착할 때 일어나는 변화가 모노크롬에 의해 실현되고 단색채를 통해 평면성의 그 자체에 도달한다.

추상 미술 이후의 미술 성향에서 그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모노크롬 작가의 노력은 카지미르 세베리노비치 말레비치(Malevich, Kazimir Severinich)<sup>5)</sup>의 단색의 절대성과 색면과의 무한한 장에 대한 강조를 바탕으로 하여 현대회화의 모노크롬의 확장과 단일색의 평면성이라는 특성을 통해 예술적 위치를 인식할 수 있다.

### Ⅲ. 1970년대 한국 모노크롬 회화

#### 1. 한국 모노크롬의 미술사적 배경

한국의 현대 미술은 앵포르멜(Art-Informel)<sup>6)</sup> 이래, 추상의 열기가 가라앉고,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 새로운 미술을 접하게 되었다. 70년대 이후 한국 현대미술의 기반으로 볼 수 있는 계기는 서양의 여러 미술 사조가 들어 왔다는 것이다. 또한 작가들의 해외활동이 많아지면서 국내의 변화가 그 전의 현대미술과는 다른 양상으로 발전되어 갔다.

75년부터 한국 현대미술의 집단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모노크롬 회화의 기운이 싹트기 시작했으며, 그 결과 '평면의 회화화'가 크게 부각되었고 무엇보다도 '한국적 모더니즘'이라는 명칭으로 우리미술의 정체성이 확립되어 갔다.

그 이전에도 '한국 아방가르드 협회'와 'ST 미술학회'<sup>7)</sup> 등이 실험적 성향의 미술이 있었지만, 양식 창조 등 실제적 측면보다는 현대미술의 연구 등 이론적인 면에 초점을 두었기에 양식적 응집력이 약했다. 그러나 '6.25세대'와 '4.19세대'를 흡수, 수렴함으로써 70년대 중 후반 이후의 인적 구성은 한층 두터워지고 서양화의 도입으로부터 비로소 정착기로 접어들게 되었다.

70년대 중반은 그 어느 때 보다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고 왕성하게 현대미술이 신장되었을 뿐 아니라 전문가적 기질을 갖춘 작가들도 대거 배출되었다. 또한 현대미술만을 취급하는 대관 및 기획 전시장이 생겼고 현대미술의 추이를 소개하는 전문지도 발간되었다. 국제적 진출과 잦아진 일본교류 등도 현대미술이 성화기를 맞게 도와주었다.

1975년부터 시작된 「에콜 드 서울」, 「서울 현대미술제」 그리고 각종 지방 미술제는 현대미술을 정착화, 극대화시키기까지 했다. 「에콜 드 서울」은 '집약'의 성격을, 「서울 현대 미술제」는 '발굴'의 성격을, 지방현대미술제는 '확산'의 성격을 띠었다고 말할 수 있다.<sup>8)</sup> 이러한 배경속에 70년대 모노크롬 회화는 국제적으로 그 당시 서구의 미니멀리즘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한국 현대회화의 주류로서 지배적인 위치를 강화하였다.

국내의 모노크롬이 공식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한 것은 1975년 동경화랑이 기획한 '한국 5인의 작가, 다섯가지의 흰색전'<sup>9)</sup>(권영우, 박서보, 서승원, 이동엽, 허황)이 개최되면서부터였으며 이들 평면 회화 속에 기용된 흰색은 물질 이상의 것이며 자연과 화합하는 생성의 마당이라는 해석이다.

70년대의 말부터는 모노크롬 회화가 우리의 독특한 문화와 결합하여 '한지작업'<sup>10)</sup>이라는 새로운 형태로 만들어진다. 이로부터 모노크롬은 한국적 정서에 더욱 걸 맞는 미적 형식으로 나아갔던 것으로 보인다. 70년대 중반의 백색 모노크롬과 함께 한지작업을 한국적 미감으로 현대화시키는 작업에 성공하면서 외형적으로는 서구의 미술 양상과 유사성을 보이지만 우리 현대 미술에서는 한국인의 얼과 혼을 담아내는 결실을 빚어냈다.

#### 2. 한국 모노크롬 회화의 특성

한국 모노크롬에서 나타나는 외형적 모습은 서구의 모더니즘회화와 비슷하다고 하겠으나 그 본질적인 미적 특성은 아주 다르다. 예컨대 20세기 모더니즘의 이론가이며 미술 평론가인 클레멘트 그린버그(Klement Greenberg)는 회화의 매체적 본성을 평면성으로 보았다. 평면성만이 회화예술에 고유한 특

수한 성질이였다. 평면적, 즉 이차원성은 회화가 다른 그 어떤 예술과도 공유하지 않는 회화만의 조건이었으며, 따라서 모더니즘 회화는 다른 무엇이 아니라 바로 평면성 자체를 지향했던 것이다. 그린버그의 해석은 형식주의 차원에서 근대주의 회화의 기본 성격은 철저한 이차원적 평면성과 함께 자기 환원으로 규정되고 있다. 이때 환원이란 '평면성의 획득' 또는 '평면과의 일원화'를 추구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환원성과 평면성은 따로 생각할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라 본다. 또한 정신적 차원에서 볼 때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모노크롬의 경우 '환원'이란 근원적인 무한의 세계로 돌아가고자 하는 동경에 의한 회귀본능일 것이다. 결국 모노크롬에서의 환원이란 철저한 이차원적인 평면 추구로 자기 자신을 찾아 나서는 작업인 동시에 순수한 미의식 속에서 무상의 행위로 확장되어야 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작가들의 환원과정에 있어 보이는 특징은 '지움과 반복'〈그림 1, 2〉으로 환원을 통해 평면으로의 회귀를 시도하면서 회화의 순수성을 비롯한 초월적이고 무한한 범자연의 세계를 얻고자 했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얻어낸 회화는 독자적인 정체성을 확보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으며, 나가우리의 현대 회화사에 있어서 한국적 모더니즘이라고 할 수 있는 독특한 미적 양식을 창출하는 밑거름이 되었다.

한국 모노크롬회화가 모더니즘과 직접 연관을 가지며 현대미술과 유사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미적인 자율성, 순수화의 의지, 평면성의 확대 등일 것이다. 그러나 한국 모노크롬회화가 갖는 독자성과 방법적 특성을 보면, 평면성, 탈이미지, 단색조라는 모노크롬회화의 일반적 특성〈그림 3〉이면에 앙포르멜이 가졌던 물적 체험, 기하학적 또는 개념적 작업에서 얻은 미술을 사유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태도, 그리고 새로운 방법적 모색에 의한 이미지의 추구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정신화된 공간으로서의 내재적 의미를 지닌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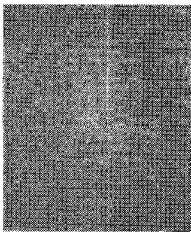
이와 같이 한국 모노크롬회화가 환원에 의한 구조로서의 평면으로 규정지을 때 또 하나 드러나는

특성은 '비물질성'이다. 비물질성은 1970년대 모노크롬회화에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성으로 물질의 세계를 반복해서 계속 탈각시켜 감으로써 마침내 도달하게 되는 정신적 지대로서의 비물질적 세계를 일컫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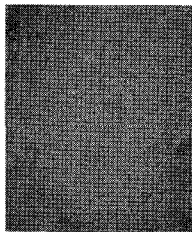
국내 작가들에 의한 비물질화 현상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1975년 일본 동경화랑에서 열린〈한국, 다섯 개의 흰색전〉<sup>11)</sup>이다. 이때 나타난 백색 모노톤은 한국현대미술의 한 특징인 정신성을 표현한 비물질화의 대표적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이 전시의 카달로그 서문에서 이일의 표현<sup>12)</sup>처럼 백색은 물질로서의 색채가 아니라 빛깔 이상의 정신적 의미가 담긴 비물질성을 보여주며, 물질이면서도 물질이 아닌 중간지대인 '제로지점'에서 파악될 수 있는 정신지대로서 중성적 구조의 성질이라 할 수 있다. 즉, 1970년대 모노크롬이 평면성을 획득하기 위하여 보여주는 일련의 외형적 특성인 탈 이미지는 중성적 성격을 띠게 되었고, 화가들은 신체를 통하여 자신의 의식세계와 외부세계가 평면 위에서 만남을 이룩하도록 다양한 행위를 구사하였던 것이다. 그러면서 주제나 소재보다는 행위의 반복<sup>13)</sup>을 통한 그림의 제작과정과 그 제작과정 속에서의 수행과 행위의 흔적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미적 경험의 요소로 자리 잡았다.〈그림 4〉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70년대 한국 모노크롬 회화는 근원적이고 원초적인 범자연의 세계로 회귀하려는 환원성과 평면의 회화적 텍스처화와 탈이미지를 통해 회화의 순수성을 추구하려는 평면성, 그리고 이 두가지 특성을 달성함에 있어서 반복과 지움의 행위를 통해 나타나는 비물질성과 중성구조의 속성 등을 공통적으로 함유하면서 탈색채주의에 의한 정신적 원초상태인 백색 모노톤의 세계를 일반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또한 반복되는 행위를 통해 대상과의 합일을 모색하면서 자기수행(自己修行)의 과정을 중시하고 있다.〈표 1〉은 1970년대 모노크롬 회화의 특성들이 가지고 있는 세부적인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표 1> 1970년대 모노크롬 회화의 특성

	특성
환원성	회화의 본질적인 평면으로의 회귀를 시도하여 가장 근원적이고 물질적인 실체에 도달
평면화	조형, 구성, 이미지, 형태, 마티에르 등의 표현적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근원적 바탕인 평면을 강조
비물질성과 중성구조	조형, 구성, 이미지, 형태, 마티에르 등의 표현적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물질성을 부정하고 물질과 비물질의 중간인 제로지점에서의 일체성을 가진 중심적 구조
백색모노톤과 탈색채주의	백색위주의 원초적인 것으로 회귀를 향한 범자연성의 탈색채주의 지향
행위의 반복과 수행성	행위의 반복을 통한 그림의 제작과정 속에서의 수행과 행위의 흔적은 중요한 미적 경험요소로 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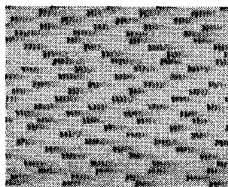
<그림 1> 박서보, 描法(묘법)NO.6, 1973



<그림 2> 박서보, 描法(묘법)NO.14, 1973



<그림 3> 김기린,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1978



<그림 4> 이우환, 점으로부터, 1973

인 표현요소들을 기준으로 신체미, 단순미, 자연미, 전통미, 전체미 등의 5 가지 미적 특성으로 분류하였다. 위의 미적 특성이 현대 패션에서는 어떠한 형태로 응용되어 표현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 1. 신체미(身體美)

신체미는 인간의 신체를 그대로 표현함으로써 느껴지는 미적 특징이다. 신체미는 1970년대 한국 모노크롬 회화에 있어서 환원성에 기초하는데 1970년대 모노크롬 회화에서의 환원성은 후기 회화적 추상의 기본 개념으로써 온갖 허식을 내던지고 가장 근원적이며 직접적인 체험으로 자기 자신으로 환원하는 예술의 추구가 무엇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것을 뜻하는데 이는 다시 말해서 하나의 캔버스가 감정의 추상적 표현이 아닌 평면 그 자체, 즉 하나의 독자적인 사물이 될 수 있음을 말한다.

이러한 회화에서의 환원의 개념을 의상에 반영을 하면 회화와 복식의 근원적 바탕의 차이로 인해 환원의 시작점이 틀려진다. 회화는 기본 바탕의 시작이 평면인 캔버스라고 할 수 있지만 의상의 기본 바탕은 입체인 신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모노크롬 회화에서의 환원은 캔버스인 평면으로의 환원이며 의상에서의 환원은 인간의 신체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환원의 개념이 신체의 본질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신체미로써 현대 패션에서 표현된다.

인간의 신체는 인간의 모든 것을 말해 줄 수 있는 근본적인 표현 도구로써 인간의 나이, 성별, 인종 등에서부터 식습관과 직업, 부의 척도까지 모든

## VI. 모노크롬 회화가 반영된 현대패션의 미적특성

지금까지 모노크롬 회화의 정의, 구조적 개념 및 미술사적 배경과 그리고 1970년대 한국 모노크롬 회화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지금까지의 탐색과정을 바탕으로 1970년대 모노크롬 회화를 현대 패션으로 표현함에 있어 나타나는 특성을 형식미학적 관점에서 시각적

것을 말해 줄 수 있는 기본적인 커뮤니케이션의 도구이며 신체 자체만으로도 너무도 아름다운 미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신체를 있는 그대로 최대한 드러낼 수 있도록 신체를 강조함으로써 본질적인 부분에 더 가까이 근접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현대패션에 있어서 신체를 그대로 드러내는 의상이나 시스루 룩(See-through look) 등으로 말할 수 있다.

<그림 5><sup>14)</sup>와 <그림 6><sup>15)</sup>은 2003 S/S 이상봉과 Exte의 작품으로 화이트와 블랙의 시스루 소재로 상체와 다리 부분을 거의 그대로 드러냄으로서 여성의 신체미를 잘 보여주고 있다.



<그림 5> 03 S/S  
이상봉



<그림 6> 03 S/S  
Exte

## 2. 단순미(單純美)

단순미는 1970년대 한국 모노크롬 회화에 있어서 평면성과 비물질성에서 기초하고 있다. 평면성은 조형, 구성, 이미지, 형태, 마티에르 등 표현적 요소들을 일제히 배제시킴으로서 평면성에 의한 균질적인 면을 추구하고자 하였고 비물질성 또한 위의 표현적 요소들을 배제시킴으로써 물질성을 부정하는데 특징이 있다. 이러한 요소들은 의상에서 단순미로 표현된다. 현대패션에서 이러한 단순미는 의상에서 장식적이거나 인위적인 요소를 제외하여 절제된 H라인이나 A라인 등의 실루엣이나 재질감이 평면적인 소재 등과 평면적 재단으로 다트를 없애고 최대한 단순하고 비장식적인 미니멀리즘적 요소로 표현된다.

<그림 7><sup>16)</sup>은 2003 S/S Gian Franco Ferre의 작품으로 네크라인부터 바지 끝까지 깔끔하게 흰색의 뽀뽀한 소재를 이용하여 단순한 느낌을 표현하고 있다.<그림 8><sup>17)</sup>은 2003 S/S Montana의 작품으로 화이트컬러의 기본적인 A라인 원피스로 단순하면서도 깨끗한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7> 03 S/S  
Gian Franco Ferre



<그림 8> 03 S/S  
Montana

## 3. 자연미(自然美)

70년대 모노크롬 회화에 나타나는 자연미는 환원성과 백색모노톤, 탈색채주의에서 비롯된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환원성은 가장 근원적이며 본질적인 것의 회귀를 뜻하고 있으며 백색 모노톤과 탈색채주의는 원초적인 것으로의 회귀를 향한 범자연성을 추구한다. 백색은 여러 가지 빛의 합일에 의해 이루어지는 자연발생적인 백색에 가까운 중성화된 색상이며 범자연성의 탈색채주의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두 가지 특성들은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의미를 지니면서 자연적인 미를 표현한다. 인위적인 형태와 원색적 색채에서 벗어난 모노크롬 회화는 있는 그대로의 자연미를 지향한다.

이러한 자연미는 의상에서 인위적 형태를 만드는 다트를 최대한 사용하지 않고 화려한 장식적인 디테일을 배제한 단순한 형태와 백색톤을 기본으로 한 아이보리, 베이지 등의 컬러를 주로 이용하여 내추럴하고 자연적인 이미지를 강하지 않은 편안한 색상을 사용함으로써 표현된다.

〈그림 9〉<sup>18)</sup>는 2003 S/S 최연옥의 작품으로 그레이시한 베이지 계열의 컬러와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끈들이 내추럴하게 나타난다. 〈그림 10〉<sup>19)</sup>는 03 S/S Motana의 작품으로 아이보리 컬러를 사용하여 H라인의 심플하면서도 멋스러운 자연미를 표현하고 있다.



〈그림 9〉 03 S/S  
최연옥



〈그림 10〉 03  
S/S Motana

#### 4. 전통미(傳統美)

전통미는 백색 모노톤과 탈 색채주의를 기본으로 행위의 반복과 수행성의 특징을 의상에서 표현한다. 앞에서 본 연구자가 설명한 바와 같이 백색은 범자연적인 의미와 함께 우리 민족에게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색상으로 동양적인 이미지와 색채 이상의 정신적 이미지를 표현한다. 이러한 이미지들은 한국적 정서의 여백의 미로도 해석 할 수 있으며 이는 우리의 민속의상인 한복이나 인위적인 염색이나 탈색을 하지 않은 자연적인 백색의 소재 등에서 표현된다.

〈그림 11〉<sup>20)</sup>은 2003-2004 Gucci의 작품으로 흰색의 색상으로 한복 치마의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12〉<sup>21)</sup>은 2003 S/S L/V의 작품으로 동양적인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는데 원피스 드레스의 라인이 한복 치마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11〉 03-04  
F/W Gucci



〈그림 12〉 03 S/S  
L/V

#### 5. 전체미(全體美)

모노크롬 회화에 나타난 전체미는 백색 모노 톤, 행위의 반복과 수행성의 특징에서 기초한다. 백색 모노 톤에서의 한국적 백색의 여백미와 행위의 반복을 통하여 반복적인 형태를 화면 전체에 계속해서 나타냄으로서 공간감과 화면의 무한한 확장성을 나타내는 두 가지 특성들에서 전체적인 조화와 공간의 미, 통일미 등을 표현한다. 이러한 특성은 한국 모노크롬 회화의 근간이 되는 서구 미니멀리즘 미술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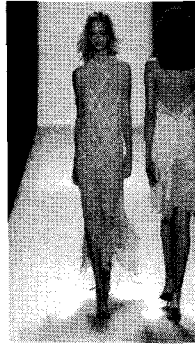
전체미는 현대 패션의 여러 부분에서 광범위하게 찾아볼 수 있는데 쉽게는 반복적인 프린트에서부터 공간미를 부각시킨 분할이나 프린트, 소재 자체의 일정한 짜임이나 반복적 디테일, 퀴팅 등에서 표현된다.

〈그림 13〉<sup>22)</sup>는 2003 S/S 임선옥의 작품으로 그레이시 베이지와 그레이 컬러를 이용하여 가슴과 다리 부분의 일정형태의 색상 배분으로 공간미와 여백미가 나타나면서 전체미가 표현된다. 〈그림 14〉<sup>23)</sup>는 2003 S/S 한혜자의 작품으로 베이지컬러 쉬폰 소재에 전체적으로 반복적인 마름모형의 디테일을 보여주면서 전체미를 표현한다.





〈그림 13〉 03 S/S  
입선옥



〈그림 14〉 03 S/S  
한혜자

〈표 2〉 1970년대 한국 모노크롬회화의 특성에 따른 현대패션의 미적 가치 표현

환원성	신체미	신체를 드러내는 의상이나 시스루룩으로 표현.
평면화 비물질성과 중성구조	단순미	H, A 라인등의 심플한 실루엣, 평면적 재질감, 다트를 없애고 단순하고 비장식적으로 표현.
환원성 백모노톤과 탈색채주의	자연미	인위적, 형태, 장식적 디테일 배제. 자연스럽고 편안한 색상사용.
백색모노톤과 탈색채주의 행위의반복과 수행성	전통미	인위적 염색이나 탈색을 하지않은 자연적 백색소재나 한복등으로 표현.
백색모노톤과 탈색채주의 행위의반복과 수행성	전체미	반복적 프린트나 공간미를 부각시킨 분할이나 프린트, 퀼팅, 반복적 디테일등으로 표현.

## V. 작품 제작

### 1. 디자인 의도

본 작품들은 1970년대 한국 모노크롬회화의 미적

특성들을 연구하여 현대패션에 응용함으로써 시대사조와 인간내면의 욕구를 반영하는 예술의 한가지인 패션디자인에 모노크롬 회화의 미적 특성을 투영시키고자 하는 것이 본 작품들의 목적이다. 1970년대 한국 모노크롬회화의 미적 특성을 살리기 위하여 그 시대 회화작품들의 미적 아름다움과 단순하고 자연적인 형태나 색채의미를 최대한 응용하고자 한다.

신체미, 자연미, 단순미, 전통미, 전체미 등의 5가지 미적 특성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소재와 기법들을 의상에 표현하고자 하였다.

아이템은 원피스, 베스트 등의 기본적인 아이템을 응용하여 H, A 라인의 직선적이고 단순한 실루엣을 사용하고 소재는 노방, 쉬폰, 실크, 모직, 면직, 가죽, 토끼털 등의 다양한 소재의 사용으로 전통적인 감각과 현대적인 감각을 조화시켜 재해석 하고자 한다. 색상에 있어서는 모노크롬 회화에서 나타나는 주조색인 백색을 기본으로 회색, 아이보리, 베이지, 청색, 흑색 등의 무채색에 가까운 색상들을 사용하였다.

이상 전체적인 작품의 표현방법을 살펴보고 작품별 다양한 기법 및 전개는 개별 설명에서 하고자 한다

### 2. 실물제작과 전개

#### 1) 작품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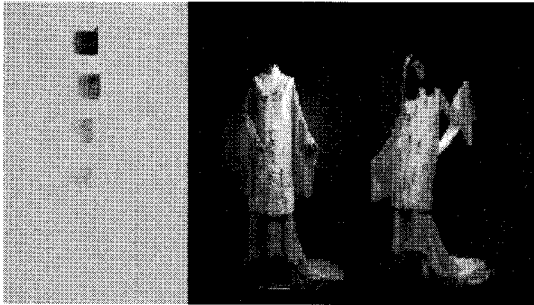


〈그림 15〉 接合, conjugation. 하중현. 1989. 작품1

본 작품은 하중현 화백의 접합(接合, conjugation)이라는 작품을 모티브로 하여 제작하였다. 자연스러운 A라인으로 한복의 속치마와 같은 이미지를 연상시키도록 제작하였으며 노방을 주 소재로 신체미가

나타나도록 가슴 위 상체부분과 스커트 부분을 비치도록 하였고 가슴 부분은 실크로 제작하였다. 그리고 넓은 벨트와 왓트 가운데 같이 늘어지는 스커트 뒷자락을 삼베로 제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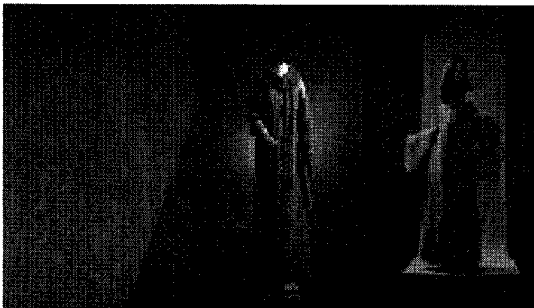
2) 작품 2



<그림 16> 점에서. 이우환. 1978. 작품2

본 작품은 이우환 화백의 '점으로'라는 작품을 모티브로 하여 제작하였다. 은은한 색상으로 염색한 쉬폰 소재로 신체미가 드러나도록 소매가 없는 긴 원피스 드레스를 제작하였고 그 위에 입을 수 있는 상의로 길이가 긴 토끼털 소재의 베스트를 제작하였다. 토끼털에 규칙적이고 반복적인 커팅을 통하여 전체미를 살렸으며 커팅된 털 위에 염색을 하여 회화의 모티브를 살렸다. 스카프 또한 원피스와 같은 소재로 비슷하게 염색을 하여 통일감을 주었다.

3) 작품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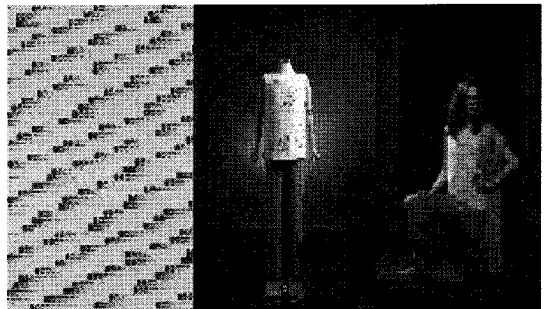


<그림 17> 묘법 NO.900726, 박서보. 1990. 작품3

본 작품은 박서보 화백의 '묘법'이라는 작품을 모

티브로 하여 제작하였다. 회색톤으로 먹 염색을 한 킬링 소재로 전통미를 강조하였으며 은은하고 깊은 색상을 내는 먹으로 자연스러운 색감의 미도 나타날 수 있게 하였다. 넓고 기장이 긴 스카프를 제작하여 민소매의 단점을 보완하도록 디자인하였으며 본딩된 면을 규칙적으로 누빔 기법을 사용하여 전체미를 표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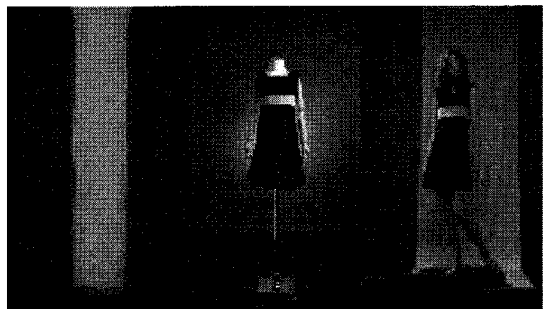
4) 작품 4



<그림 18> 점에서. 이우환 1976. 작품4

본 작품은 이우환 화백의 '점으로'라는 작품을 모티브로 하여 제작하였다. 앞에 나왔던 같은 제목의 작품과 비슷한 이미지로 점이 더욱 가깝게 위치하여 많이 나타나 있는 것을 베스트에 그라데이션 기법으로 염색을 통하여 표현하였다. 바지는 쉬폰 소재로 자연스러운 라인이 나올 수 있도록 하였고 허리에 셔링을 많이 넣어서 여유있게 한 후 통이 넓게 디자인하여 끈으로 묶을 수 있게 디자인하였다.

5) 작품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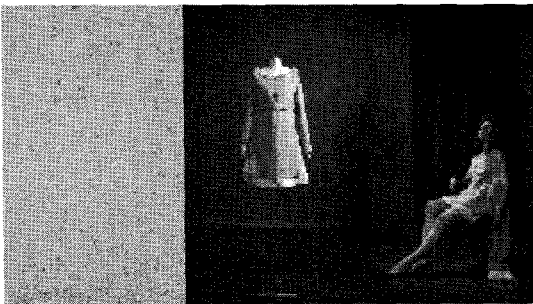
<그림 19> 다색과 청색. 윤형근. 1975. 작품5

본 작품은 윤형근 화백의 '다색과 청색'이라는 작품을 모티브로 제작하였다. 검정색의 무게감이 있는 모직으로 원피스를 디자인하였으며 넥라인과 가슴 부분에 그레이시한 베이지 색상의 모직으로 모티브를 표현하였다. 상의 부분에 전체적으로 일정한 간격의 커팅으로 디자인되었고 스커트의 오른쪽 2/3 지점에서 쉬폰으로 주름을 잡아서 조화를 이루면서 전체미를 강조하였다.

본 작품은 정상화 화백의 Untitled 74-A-1이라는 작품을 모티브로 하여 제작하였다. 아이보리 색상의 실크로 원피스를 제작한 후 베이지 컬러의 모직으로 제작된 다시 옆선이 없는 베스트를 입게 디자인하였다. 단순미와 전제된 디자인으로 전체미를 표현하였다.

## VI. 결론

### 6) 작품 6



〈그림 20〉 정상화, Untitled 74-A-1, 1974, 작품6

본 논문은 모노크롬 회화의 미술사적 배경과 특징에 대한 일반적인 고찰을 통하여 모노크롬 회화의 개념을 파악하고 1970년대 한국 모노크롬 회화의 특성들을 살펴보고 현대 패션에 어떻게 반영되었고 이로 인해 모노크롬 회화의 미적인 특성들을 파악하였다. 이를 토대로 의상으로의 접목을 시도하여 현대의 패션 감각으로 6 작품을 제작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모노크롬의 이론적 배경을 고찰한 결과 모노크롬 회화는 미니멀리즘과 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아 현대회화의 주요 흐름인 추상표현주의가 평면성과 단색성을 바탕으로 형성되고 그러한 평면성의 관습이 모노크롬으로 함축되었음을 알았다.

둘째, 1970년대 한국 모노크롬 회화의 신체미, 단순미, 자연미, 전통미, 전체미 등의 미적 특성들은 다음과 같이 현대 패션에서 표현되었다.

신체미는 현대패션에 있어서 신체를 드러내는 의상이나 시스루 룩 등으로 말할 수 있다.

단순미는 의상에서 장식적이거나 인위적인 요소를 제외하여 절제된 H라인이나 A라인 등의 실루엣이나 재질감이 평면적인 소재 등과 평면적 재단으로 다트를 없애고 최대한 단순하고 비장식적인 미니멀리즘적 요소로 표현된다. 평면성은 현대패션에서 미니멀리즘적인 요소로 표현된다.

자연미는 의상에서 인위적 형태를 만드는 다트를 최대한 사용하지 않고 장식적인 디테일을 배제한 단순한 형태와 백색톤을 기본으로 강하지 않은 자연스럽고 편안한 색상을 사용함으로써 표현된다.

전통미는 우리의 민속의상인 한복이나 인위적인

〈표 3〉 작품설명

작품 번호	구 성	표현미	소 재	표 현 기 법
작품 1.	One-Piece Dress	신체미 자연미 전통미	노방, 면, 삼베, 실크, 가죽끈	면 염색, 절개선을 이용 반복적 형태 표현.
작품 2.	One-Piece Dress Long vest, Scarf	신체미 자연미 전체미	쉬폰, 토끼털	토끼털을 커팅하여 염색, 쉬폰을 분무염.
작품 3.	One-Piece Dress Scarf	자연미 전체미 전통미	숨이 분당된 면	퀼팅, 먹 염색.
작품 4.	Vest Slacks	신체미 자연미 전체미	퀼팅된 면, 쉬폰	면 염색, 쉬폰을 두겹으로 하여 시스루 표현.
작품 5.	One-Piece Dress	단순미 전체미	모직, 쉬폰	색을 이용한 면 분할, 주름을 이용한 쉬폰의 반복성 표현.
작품 6.	One-Piece Dress Long vest	단순미 전체미	모직, 실크	옆선을 오픈하여 새로운 아이템으로 표현.

염색이나 탈색을 하지 않은 자연적인 백색의 소재 등에서 표현된다.

전체미는 현대 패션의 여러 부분에서 광범위하게 찾아볼 수 있는데 쉽게는 반복적인 프린트에서부터 공간미를 부각시킨 분할, 전체적인 조화미, 소재 자체의 일정한 짜임이나 반복적 디테일등 에서 표현 된다.

모노크롬 회화는 서구의 미니멀리즘과 모더니즘에서 영향을 받아 현대 패션의 많은 개념적인 부분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특히 1970년대 한국 모노크롬 회화는 서구의 모노크롬 회화에서 그 뿌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한국적인 정체성을 개념적으로 새롭게 받아들임으로써 변화를 받아들임에 있어서의 모범적인 재해석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모노크롬 회화를 패션에 투영시키는 작업으로 모노크롬 회화의 특성을 현대 패션에서 새롭게 재해석하고자 했으며 이러한 시도가 이후 모노크롬 회화의 예술성을 확장시키고 현대 패션이 발전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표현방법에 관한 연구. 한국고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36-38.

- 12) 이일(1975). 백색은 생각한다. 한국 5인의 작가-다섯 가지 흰색전 카달로그 서문, 동경화랑.
- 13) 장원양(1997). 70년대 한국 모노크롬 회화의 특성과 표현방법에 관한 연구. 한국고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40-42.
- 14) 자료출처: <http://www.firstview.com>
- 15) 자료출처: <http://www.firstview.com>
- 16) 자료출처: <http://www.firstview.com>
- 17) 자료출처: <http://www.firstview.com>
- 18) 자료출처: <http://www.firstview.com>
- 19) 자료출처: <http://www.firstview.com>
- 20) 자료출처: <http://www.firstview.com>
- 21) 자료출처: <http://www.firstview.com>
- 22) 자료출처: <http://www.firstview.com>
- 23) 자료출처: <http://www.firstview.com>

## 참고문헌

- 1) 두산세계대백과사전 En Cyber. 2003. 6. 28. [www.naver.com](http://www.naver.com)
- 2) 클레멘트 그린버그(Klement Greenberg), 김광명(1979). *Modernist painting*. 現代美術批評30선. 중앙일보사, p.67.
- 3) 임영방(1979). 현대미술의 이해. 서울대출판부, p.32.
- 4) 하드 에지(Hard Edge): 1950년대 미국을 중심으로 일어난 기하학적 추상의 새로운 경향.
- 5) 카지미르 세베리노비치 말레비치(Malevich, Kazimir 1891-1935) 러시아의 화가 키예프 출생. 세잔, 포비즘, 입체주의의 영향을 거친 다음 1913년 최초의 슈프레미티즘의 회화를 그림. 이후 절대주의를 추진하여 영작에 도달함. 당시 유럽 현대미술에 큰 영향을 미침.
- 6) 서성록(1994). 한국의 현대미술. 서울: 문예출판사, p.186.
- 7) 윤진섭(2000). 한국 모더니즘 미술 연구. 서울: 도서출판 재원, pp.13-15.
- 8) 윤진섭. 상계서, p.132.
- 9) 장원양(1997). 70년대 한국 모노크롬 회화의 특성과 표현방법에 관한 연구. 한국고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36.
- 10) 서성록(2000). 앵포르멜에서 단색화까지 박서보. 서울: 도서출판 재원, pp.80-81.
- 11) 장원양(1997). 70년대 한국 모노크롬 회화의 특성과